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228)]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62)

천연기념물 유적 보존·학술조사 시급

입력 : 2005. 01.14. 00:00:00



▲동부산업도로에서 바라본 거문오름. 물결치는 듯한 능선 아래 분화구 내에는 희귀 난대식물과 일제 진지동굴, 4·3유적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산세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거문오름은 지난 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거문오름 양코르 탐사

지난 8일 을유년 첫 탐사로 1년 전 탐사를 했던 거문오름(서검은오름, 서거문이)을 다시 올랐다. 대맥 탐사팀이 거문오름을 다시 찾은 것은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 따른 양코르 탐사 성격이었다.

특히 지난 2003년 12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거문오름을 집중 탐사했던 본보 탐사팀이 이 곳의 비경과 자원적 가치에 대해 연속시리즈로 보도(2004년 2월 6, 13, 20일)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왔기에 이날 탐사는 특별한 감회를 갖게 했다.

동부관광도로에서 거문오름을 보면 여전히 나지막한 오름이다. 삼나무 조림지를 오르면 곧바로 산화경방초소가 있는 봉우리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지나서 다시 목장용 철조망을 따라 올라 서사면 봉우리에 도착했다. 1년 전 만났던 거대한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백록담 분화구보다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정확한 실측자료가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너울처럼 이어져 있는 능선상의 봉우리들과 분화구내 알오름의 위용은 여전하여 감탄이 절로 나온다. "구룡이 어지러히 여의주를 희롱하니 태고의 신비감이 도처에 걸렸구나"라고 읊었던 신영대 탐사위원의 한시 구절이 문득 스쳐간다.

능선을 내려와 잔디밭처럼 펼쳐진 조천목장을 가로질러 오름 북쪽의 수직동굴 '거멀굴'을 확인

하였다. 식나무와 붓순나무 등 난대상록활엽수가 무성한 계곡 속에 숨겨져 있었던 깊이 35m의 거멀굴은 그 사이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탓인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1년 전, 동굴입구가 시커멓게 벌리고 등골이 오싹하게 했던 모습과는 달리, 가로 세로로 철망을 해놓아 위험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4·3당시 희생자를 37년만인 1985년에야 이 깊은 동굴의 밑바닥에서 발굴했던 아픈 역사는 이 동굴의 존재와 함께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계곡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오름분출과 연관된 지구대(rift vally)와 함몰구(pit crater) 등이 설명되어지는 곳이다. 거대한 오름분화구를 따라 수직동굴, 용암하도, 함몰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문오름과 선흘곶자왓 일대는 화산지형과 동굴연구를 위한 핵심공간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오름 분화구내로 발길을 돌렸다. 외풍이 센 능선과는 달리 분화구 안은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희귀 난대 상록수인 식나무와 붓순나무의 초록색은 흰눈 속에 푸르름이 더하고, 식나무의 빨간 열매는 최고의 볼거리다.

분화구안 알오름을 한 바퀴 돌면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군 108여단 4천여명이 주둔했던 진지동굴과 막사를 쳤던 자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주변마을 주민들에 의해 오름 곳곳에 진지가 구축되고 동부관광도로 건너 부대오름까지 지하 통로를 연결시켰다는 믿기 힘든 증언도 전해진다. 싫든 좋든 중요한 역사유적임에 틀림없다. 일본군 철수 당시 미처 폭파되지 않아 남아 있는 진지 동굴이나 돌담으로 울타리가 쳐진 막사 자리 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할 것이다.

구좌·성산일대 오름군이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거문오름 동사면에는 잘 단장된 묘지들이 수두룩하다. 거문오름의 신비한 산세로 인해 후대에 발복한다는 명당자리라는 속설에 의해 묘가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거문오름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오름명칭이 그동안 검은이오름, 서거문이, 서검은오름 등 여러 가지로 불려져 왔던 것이 거문오름으로 통일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앙코르 탐사는 이 일대의 식물자원, 화산지형과 역사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더불어 특히 역사유적 등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

모든 것 간직한 오름 중 백미

오문필 탐사위원(산악분야)

거문오름에 들어서면 여느 오름들과는 다르게 물결치는 듯한 능선과 거멀창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말굽형 분화구가 탄성을 자아낸다. 이곳이 한국 최대의 상록 난대림 군락지인 선흘곳의 시발점이다.

오름 주변에 4-3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35m깊이의 수직동굴인 거멸굴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함몰구가 산재하며 함몰구내에는 공중습도가 높아 온갖 양치류가 자생할 수 있는 특이한 생태환경을 형성한다.

분화구내에 들어서면 초봄에 나뭇잎들이 돌아나기 전에 바람꽃, 개별꽃, 산자고와 같은 키작은 야생화들이 수없이 피어나는가 하면 겨울의 눈속에서 싱싱함을 발하는 식나무, 붓순나무들이 군락을 형성하며 푸르름을 뽐낸다.

거대한 분화구내에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 108여단의 주둔지로 구축하였던 진지동굴, 병사터, 샘터와 같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거문오름은 특이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우리의 역사 등 오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간직한 오름 중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식나무·붓순나무 희귀식물 보고

강영제 탐사위원(식생분야)

2004년 한라대맥탐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문오름의 주변 지형 및 각종 상록활엽수, 양치류, 선태류의 보고로 재인식되어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된 것은 한라산 대탐사의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식물들은 붓순나무, 식나무, 나도은조롱, 검은딸기 등이며 아직까지 조사가 미흡한 양치류, 선태류 등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붓순나무는 제주도 지방명으로 팔각낭이라 불리우고 외국 특히 일본으로 절화용 소재로 수출이 가능한 수종으로 앞으로 자원화 할 가치가 많은 수종이다.

이 같은 거문오름 주변은 각종 용암동굴의 흔적, 제주도 곳자왈의 모습, 희귀한 상록활엽수와 각종 양치식물의 서식지, 계곡, 곳자왈, 식생 등 제주 자연사의 축소판을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과 개발을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 전문가 및 제주도민들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숙제이다.

오소리 등 동물들의 안식처

김완병 탐사위원(동물분야)

거문오름 정상을 오른 순간, 멀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습새와 흑비둘기의 번식지인 사수도가

눈에 들어왔다. 거문오름은 이제 사수도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만 했을까. 거문오름의 식구들인 돌, 흙, 나무, 새들은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서도 묵묵히 제 위치에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자연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방적인 소유욕이 앞섰다. 그러한 욕심이 제주의 생명 자원을 하나 둘씩 잠식해감으로써 미래 세대는 희망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참 다행이다.

다음달이면,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와 같은 새들을 포함하여 모두 14종의 동물이 추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발효된다. 그리고 이제는 생물종 또는 특정 대상 중심에서 벗어나 공간 중심의 보호정책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거문오름에서 살아가는 호랑나비, 때까치, 비바리뱀, 오소리들도 제대로 대우받게 되었다.

복잡한 지질요소 심층연구 절실

정차연 탐사위원(지질분야)

거문오름은 다소 복잡한 화산체의 형태, 화산체의 좌우로 넓게 분포하는 화산성암설사태층, 중심분화구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길게 연장된 좁지만 깊은 계곡, 그 계곡 주변에 형성된 수 개소의 함몰분지(함몰분화구)와 용암동굴의 입구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독특하면서도 그 화산활동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오름 중의 하나이다.

중심분화구로부터 북쪽방향으로 주변보다 낮은 계곡이 약 3km 가량 연장되어 나타난다. 이 계곡은 용암이 흘러 내려가면서 만든 용암하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반면, 지하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각에 균열을 만든 열곡(Rift valley)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 이 계곡이 만약 열곡이라는 증거가 많이 제시된다면, 그 당시의 제주도 화산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거문오름을 둘러싼 복잡하면서도 신비한 화산활동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구화학, 화산층서학 및 절대연령측정 등 장기간이면서 다양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